

01 교회소식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되새기며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했던 부활절 감사예배 및 온라인 성찬식.

02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시리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영계의 법칙에 완벽하게 부합되는 구세주를 예비하셔서 때가 이르매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

03 기획특집

구원과 소망을 주신 주님께 찬양~

질병을 치료받고 영태의 축복을 받는 등 하나님 권능을 체험한 가족들이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 드린 가족 찬양대회.

04 간증

“죽음과 같았던 삶에서 벗어났어요”

심장마비로 닥친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 주시고, 가족이 대신 받은 기도로 하지 림프부종 등이 치료된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41호 2021년 4월 11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2021 부활절 감사예배 및 온라인 성찬식



기독교 3대 절기 중 하나인 부활절을 맞아 우리 교회는 지난 4월 4일 주일, '2021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렸다.

GCN방송(www.gcntv.org)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 되는 가운데, 대예배는 '부활의 주'(요 20:19~23)라는 제목의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영상설교가 있었다.

또한 저녁예배에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가 '어린이를 먹는 법'(요 6:53~55 ; 출 12:8~10)이라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방법에 대해 전한 후 성찬식을 집례했다.

성찬식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우리 교회는 물론 랜선예배에 동참한 국내외 지교회 성도들이 함께했다. 성도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준비하여 각 처소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해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4월 2일(금)에는 성도들이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며, 이날 밤 11시에 시작하는 금요철야예배 시에는 2019년 부활절 공연, '잊을 수 없는 사랑'이 상연됐다.

‘부활절 기념 가족 찬양대회’ 열려



지난 4월 4일 주일 오후 1시 30분, 교역자회 주관 '부활절 기념 가족 찬양대회'가 열려 GCN방송과 모바일앱,

KT 올레TV 882번을 통해 방영됐다.

김혜은 자매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사전녹화 되었으며, 총 31개 팀이 참가해 1차 예선과 2차 본선을 거쳐 10개 팀이 결선에 진출해 경합을 벌였다.

대상은 김진주 전도사 가족(2세대 10교구, 사진), 금상은 조성범 집사 가족(중국 2교구), 은상은 박광현 목사 가족(3세대 19교구)이 수상했으며, 특별히 성도들이 링크를 통해 투표로 선정한 인기상은 박철국 집사 가족(중국 2교구)에게 돌아갔다(3면 참조).

“몸이 마비돼 누워 지냈는데 이젠 움직일 수 있어요!”

크리시나 프라사드 야다브
(55세, 인도 우타프라데시주 곤다지역)

저는 오른쪽 편마비가 오고 앓을 수조차 없게 늘 침대에 누워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내의 도움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다니는 만민가정교회의 칼리 프라사드 형제가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내를 통해 저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해 들은 형제는 제가 '인도 랜선 은사집회'에 참석해 치료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제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설명하며 곧 있을 집회에 대해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아내를 핍박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도 치료받아 건강해지고 싶었지요.

3월 14일 주일, 저는 아내의 부축을 받아 간신



히 만민가정교회에 가서 유튜브 채널(GCNTV HINDI)을 통해 은사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만 시청하다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지요. 너무나 몸의 통증이 심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

제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앓을 수도, 설 수도 있게 되었으며 점차 오른쪽 편마비가 풀려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좋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세주인가(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12)

어떤 계약이든 서로 지켜야 할 조건이 있듯이, 토지 무르기 법칙(레 25:23~25)에 따라 원수 마귀에게 넘겨준 아담의 권세를 다시 찾으려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처음부터 아셨기에 토지 무르기 법칙에 따라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토지 무르기 법칙에 따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조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1. 아담의 근족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관 것을 무를 것이요” 했습니다. 토지 무르기 법칙에 따르면 돈이 없어 토지를 팔더라도 무를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근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원수 마귀에게 넘겨준 권세를 되찾을 수 있는 존재도 반드시 아담의 근족이어야 하지요. 이는 바로 아담과 같이 영, 혼, 육을 가진 존재, 곧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22절에도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5장 1~5절을 보면 토지 무르기 법칙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하늘에는 천사가 있으나 사람이 아니고, 땅 위를 보니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뿐이며, 땅 아래 음부에는 지옥에 갈 죄인과 마귀에게 속한 것밖에 없어서 사도 요한이 심히 애통합니다. 이에 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지요. 바로 다윗의 뿌리란 유대 지파를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뜻하며(행 13:22~23), 이는 예수님께서 토지 무르기 법에 합당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근족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고,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며,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닌 분이지만 우리와 같은 살과 뼈가 있는 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세계사가 기원전인 B.C.와 기원후인 A.D.로 연대가 나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아담의 근족, 곧 사람이어야 한다는 토지 무르기 법칙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분입니다.

2.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아담의 근족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아담의 후예인 사람은 왜 구세주가 될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 동생이 많은 빛을 지고 감옥에 갈 처지일 때 형이 그 빛을 대신 갚아 준다면 동생은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도 동생처럼 빛을 지고 감옥에 갈 처지라면 그 빛을 갚아 줄 수가 없지요. 이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려면 자신에게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여 그의 후예는 모두 죄인이 되었으니 아무리 뛰어난 인격을 갖춘 성인이라 해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씨, 곧 정자와 난자를 주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부모의 기가 들어 있어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 체형은 물론 성품이나 습관도 닮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기 속에는 죄성도 포함되어 있지요.

첫 사람 아담이 타락한 때부터 조상들의 죄성이 자손들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로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여 한 사람, 곧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며 원죄를 갖고 태어났으므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직 한 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만이 사람이면서도 아담의 후예가 아니시기에 구세주의 조건에 합당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면서도 아담의 후손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하여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했고,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요셉의 정자나 동정녀 마리아의 난자를 통해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단순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 성령의 능력을 통해 잉태되셨으므로 죄인들의 기를 전혀 물려받지 않으셨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서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며, 원죄가 없으시니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3.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26~27절에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거든 그 관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는데, 이는 팔았던 토지를 다시 무려면 그만큼 힘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빛을 갚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도 자신에게 그만큼 재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를 무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영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입니다. 따라서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아담의 권세를 회복하려면 죄가 없어야 하지요. 죄가 없어야 원수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진 죄인이고 또한 자범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성을 말하고, 자범죄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하지요. 무거운 죄만이 아닌 가벼운 죄를 지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규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며(약 2:10), 더구나 영적으로는 마음에 죄를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인입니다(마 5:28 ; 요일 3:15). 이처럼 행함으로나 마음으로도 한 번이라도 범죄한 사람은 인류를 구원해 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조금도 죄가 없었을까요? 성령으로 임태된 예수님께는 사람의 기를 통해 물려받는 원죄가 없었습니다. 또한 어릴 적부터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셨으며,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온전한 분이십니다.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눅 2:21),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아무런 자범죄도 짓지 않으셨으며,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벧전 2:22~24 ; 히 7:26).

이처럼 예수님께서 전혀 죄가 없으셨기에 원수 따귀를 이기고 인류를 구원할 힘이 있으셨으며,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도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지라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영적인 권세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권능의 역사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소경이나 귀머거리, 앉은뱅이같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이라도 말씀으로 온전케 하셨습니다. 심지어 풍랑이 이는 바다를 향해 명하시니 곧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막 4:39).

4.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토지를 무를 힘이 있는 근족이 있다 해도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토지를 되찾아 줄 수 없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온전히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룻기 4장 1~6절을 보면 보아스가 가난한 나오미의 형편을 알고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기업 무르기를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업 무를 사람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무를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답변하지요.

이렇게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무를 수 있는 힘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의 다음 근족인 보아스가 기업을 무를 수 있는 힘과 사랑이 있어 그를 대신하였지요. 보아스에게는 사랑이 있었기에 합법적으로 기업 무를 사람이 되어 룻과 결혼하였고, 다윗왕의 증조부로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구세주의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셨지만 만일 사랑이 없으셨다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죄를 대속한다는 것은 죄인 된 인류가 받아야 할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죄가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과

같이 되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물과 피를 다 쏟고 대신 죽어야만 하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런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셨으며 참혹한 나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더구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오직 선만 행하셨지요. 죄인을 용서하셨고, 갖가지 병든 사람을 치료하셨으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시고 화평과 기쁨과 사랑,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멸망으로 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영계의 법칙에 완벽하게 부합되는 구세주를 처음부터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아무 죄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고 고자 사랑하는 독생자의 생명으로 우리 생명의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심으로,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고민주공화국 킨사사만민교회

“하지 림프부종, 류머티즘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저희들을 대신해 가족이 기도받았는데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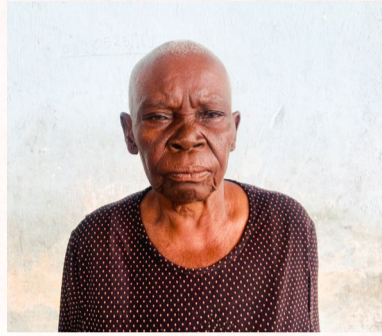
마바야 성도 (65세)

다리에 이상 증세가 느껴지고 점점 부어올라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니 ‘코끼리 병’이라 불리는 하지 림프부종이었습니다. 거동하는 게 어려운 저는 2년 반 동안 집안에서만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킨사사만민교회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 시 감사 이미경 목사님께서 랜선을 통해 기도해 주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딸에게 제 사진을 가지고 참석해 대신 기도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2월 14일 주일, 딸이 랜선으로 감사님의 권능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제 사진 위에 받았는데, 집에 있던 저는 순간 다리에 힘이 주어지는 것을 느꼈고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에 집앞에 나가서 남편과 딸을 기다렸지요.

혼자서 걸어 나온 저를 본 그들은 매우 놀라워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걸어서 교회에도 갈 수 있었습니다.



소나 성도 (87세)

저는 노환과 전신 통증,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3년 동안 누워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지난 2월 14일 주일, 킨사사만민교회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 및 권능의 손수건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랜선을 통해 서울 만민중앙교회 이미경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교회에 너무나 가고 싶었지만 거동할 수가 없어서 손자(14세)에게 저를 대신해 기도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손자는 저를 위해 감사님의 권능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았지요.

그 뒤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던 손자는 집 앞의 광경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거동도 못하던 제가 집 밖에까지 나와 자신을 반갑게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는 건강이 회복돼 잘 걷고, 주일 예배에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온 심장마비,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 주신 주님!

정안권 장로 (3대대 15교구, 68세)

지난 2월 22일 아침, 저는 출근하던 중 노상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해 구급대원들이 왔을 때에는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였고, 응급조치로 다시 심장이 뛰었지만 병원에 도착할 때쯤 다시 심정지가 왔지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당장 수술해야 했기에 병원에서는 연락을 받고 급히 오고 있는 아내에게 전화해 수술 동의를 받아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먼저 교구장 문신현 목사님께 알려 저

를 위해 기도를 받았지요. 수술을 마친 후 저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가족들에게 3일 안에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고, 깨어나더라도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50%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대대교구장 이미영 목사님께 제 사진을 보내 기도를 받았고,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구 식구

들과 장로회 임직원들의 중보기도도 부탁하였지요.

주님의 은혜로 수술한 지 3일째 되던 2월 24일 아침, 저는 의식이 돌아오고 신속하게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빠른 쾌유에 중환자실 간호사들도 놀라워하였지요.

결국 저는 입원한 지 10일 만에 퇴원해 지금은 정상적으로 출근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제게 새 삶을 허락하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6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해피타운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임시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세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평1길 13 2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영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창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대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